

▶ 주제발표 4

사라진 어제의 일상사日常事와 오늘의 주거공간

전 남 일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전공 교수

1. 들어가며

한국사회가 외부에 개방되고 근대적 사회로의 첫발을 내디딘 이후 지난 1세기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사회차원에서 개인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급격히 변화해 왔다. 경제적 성장, 산업의 발전, 문화적 성숙을 이루었고 생활의 질의 향상도 이루어졌다. 또한 정치적 격동을 겪었으며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위기도 겪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시대마다 우리의 세세한 삶에 영향을 미쳤고, 그 세세한 삶은 하나하나 모여서 “일상사日常事”라는 또 다른 차원의 우리 생활의 자화상을 만들어 왔다. 일상사는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으로서, 그것의 변화는 느리고 감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변화된 일상사는 어느 순간 다시 친숙한 것이 되고 하나의 규범화된 일상사를 만든다. 왜냐하면 일상사의 변화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감되는 하나의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우리는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망에 얽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사는 개인적인 것도 하지만 집단적이기도 한 것이고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넓은 강과 같은 것이다. 이때 일상사의 주체는 다양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며, 그 대상은 다양한 시대와 지역을 아우른다. 이들의 모습을 미시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일상 전체의 모습을 투시하게 된다.

일상사日常事는 곧 일상사日常史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은 과거의 우리의 삶인데, 정작 어떠한 세세한 조각들이 모이고 변화하여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이제까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변화의 큰 줄기만을 이해해 왔을 뿐이다. 그렇지만 인간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의 사건변화 사이사이 존재하는 일상사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특히 일상사

에 대한 미시적 관점은 계량적 방법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개개인, 혹은 공동체의 인적 관계망과 가치관, 일상적 생존전략 등을 조망하도록 해 준다.(곽차섭, 1999) 특히 근대 이후 격변의 시간을 보낸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상사의 하나하나 장면들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근대성”을 설명하는 데 충분히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다양한 일상적 생활의 행위들 중 주생활에서 경험한 일상사의 변화를 추적하여 현재 우리 주거공간의 역사를 “일상 변화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그것은 곧 개인이 생활의 변화와 타협하고 또한 집단적 공감을 불러일으켜 일반화되는 과정, 즉 우리 모두의 현재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본고는 일상생활의 구조를 시공간적 구조와 사회적 구조(강수택, 1998)의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전자는 외적 조건들에 의해서 형성된 의미구성체의 형태로, 일상생활의 주체인 개별 행위자의 행위수행에 유형화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인데, 여기서는 주거공간의 변화가 해당된다. 또한 후자는 개별 행위자의 행위 수행에 유형화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 간접적 인적 조건, 즉 인간관계적 조건인데, 여기서는 주거공간의 근대성을 논하는 몇몇 화두, 즉 개인의 자유를 담보하는 “분리”, “분화”와 “내밀화”가 그에 해당된다.

2. 주거공간의 기능과 역할 변화

집안에서 모든 것을 : 조선의 전통주택에서 주거공간은 일상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였다. 내부공간인 방, 그리고 과 내, 외부공간의 중간적 성격을 갖는 대청, 그리고 외부공간은 각각의 기능이 있었다. 주거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 많은 주거생활의 기능들은 같은 공간에서 중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방에서는 취침, 휴식, 손님접대, 씻기, 식사, 육아, 노인병간호, 가사일 등 일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졌고, 마당에서는 주로 혼례, 상례, 잔치 등의 비정기적 일상사와 음식보존, 가사 및 생계작업 등이 이루어졌다.

도시공간의 등장과 주거 밖에서의 생활 : 원래 조선의 도시공간에 집회, 연주회, 승마장 등 공공유흥장소라고는 전혀 없었고, 사회적 접촉의 기회도 주거공간 주변 외에서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들어온 서구식의 문화는 조선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습관, 그리고 일상의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일본의 소비문화가 급속한 경성의 거리에는 일본인 상점들이 불야성을 이루게 되었다. 원래 방문판매를 선호했던 조선인들은 애초 이런 일본인 상점가의 상설 점포판매를 생소하게 여겼지만 점차 소비문화의 편리함에 길들여져 갔다. 진고개에 즐비한 찻집, 빙수집, 우동집, 카페 등은 도시생활을 즐기는 장소가 되었다(노형석, 2004). 예전에 모두 주거공간 내에서 행해졌던 행위, 즉 사교, 오락, 휴식, 접대를 위한 기능적 공간들이 구락부, 카페, 공원, 요리집 등의 이름으로 도시 공간에 등장했으며,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그들의 하루에 주어진 상당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한편 급격히 산업사회로 전이되면서 공장, 사무실 등 농경사회에는 없었던 생계공간도 생겨났다. 공장직공으로서 피땀을 흘리며 햇빛을 못보고 질식할만한 공장에서 열시간씩, 열두시간씩 노동을 하는 남편과 집안에서 빈둥대는 아내의 모습 역시 새로 나타난 일상의 모습이었다. 남성들 역시 직장이 끝난 후 선술집 등에서 그날 받은 일당으로 술을 마셔버리고 오는 경우가 허다했으니, 결혼한 남성의 생활무대는 도시, 여성의 무대는 집안으로 이분화되기 시작했다.

신가정의 탄생 : 한편 40년대에 이르면 재래의 가족형태와는 다른 이른바 신가정도 탄생했다. 신가정에게 집은 가족의 단란한 공간으로 정착, 형성되어갔다. 이때 ‘단란한 가족’의 범주에는 친척조카 등 친족 까지 포함한 대가족이었다. ‘즐거운 나의 가정-신가정의 향기’에 소개된 음악가 계정식씨 집과 여배우 김신재씨 집은 식탁을 둘러싼 평화로운 저녁식사시간과 단란한 하루의 일상을 소개하고 있다.

“저녁이 다 되어서 진지그릇 뚜껑까지 열어 놓고 貞香이가 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심부름을 한 두세 차례 하여야 그제서야 안방으로 들어온다. 할머니를 爲始하여 어린애 아버지나 貞香이 貞雄이 또 지금같이 와 있는 죽하 順愛 둘러앉는 圓卓이 버려진다. 貞雄이는 죽을 먹여서 쫓아 낼려면 한 씨름 하여야 한다. 그애까지도 인제는 食卓에 참례하여 이것저것 먹이라고 손꾸락을 비치고 요것저것 가라친다. 貞香이는 무엇을 지저귀고 종알거린다.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세음이다. 食事が 끝나기가 무섭게 또 書齋로 달려간다.”(「삼천리」, 1940, 제12권 제10호)

“시아버님은 20餘年前 옛날에 돌아가시였고 홀노 아들덜을 더리고 늙으신 시어머님과 仁慈하시고도 細密하신 아즈머님과 형님 그리고 高等女學校에 다니는 죽하와 우리 두리 그리고 지금 한참 말 배우노라고 어른이 하는 말은 다 승내내는 아양꾸러미 두 둘을 맞이 하려는 내 딸! 이 일곱명이 우리집안 食口입니다. (「삼천리」, 1940, 제12권 제10호)

간소화되고 합리적인 주거공간에 대한 이상 :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주거 내 기능이었던 가사노동, 병과 죽음에 대한 보호, 아동교육 등은 병원, 학교 등 사회적 인프라의 등장으로 주거로부터 점차 떠나 전문화되었고 주거의 기능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개인, 또는 가족 및 공동체 단위로 통제되었고 모든 가능한 삶의 행위가 일어났던 생활공간이 단지 가족을 위한 사적인 기능만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일상사의 많은 기능들이 주거 밖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비정기적 일상엔 주거공간 내에서 행해져 왔다. 그러나 70년대 경제개발 시기, 즉 정치적으로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는 근대화과정에서 ‘합리성’이라는 패러다임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이는 계몽을 통해 확산되었다. 주거공간에서 행해지는 비정기적 재생산기능, 예를 들면 전통적 제례, 혼례, 상례 등은 구태의연한 전근대적 산물로 취급되고 허례허식이라고 폄하되어 간소화, 합리화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압력은 주거공간을 최대한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하는 합리적 공간으로 재편성하는 데 당위성을 부여했다.

그리하여 주거공간 내에 남아있게 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사밖에 없게 되었다.²⁾ 비정기적 일상사에서 공유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난 후 가정 내 각 가족구성원의 생활행위도 거의 완전히 분화되었다. 특히 도시사회에서 가장은 직장에, 아들은 학교에 나가고, 주부는 가사를 돌보는 식으로 일상의 행위는 분리되어 전통적인 농촌사회에 있어서와 같이 가정의 권위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일상이 주기적 생활패턴을 형성하게 된 후 온 가족이 공유하는 시간은 주말이나 저녁시간 뿐이었지만 이마저도 집밖에서 각자의 여가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빈번해졌다. 왜냐하면 주거 내 비정기적 일상의 기능들이 축소되었을 때 사람들에게는 진부한 일상을 대신할 그 무엇이 새로이 필요했고, 그것은 보통 집 밖에서의 각종 여가생활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홈, 스위트 홈”의 환상 :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성장과 생산의 시대에 ‘근대화’로 대변되는 사회적 개발의 선두에서 사회에 귀속되었으며, 사회와 가정은 이분법적으로 단절되었다. 산업화된 사회에서 남성은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아침에 집을 떠났다가 저녁 때 들어오는 생활패턴을 반복했다. 따라서 집은 여성이 안주하며 홀로 지키는 공간으로 변했다. 주거는 일상을 떠났던 가족이 돌아왔을 때 최대한 아늑하고 단란한 휴식의 공간이 되어야 했다. 또한 이웃도 아무 때나 찾아오지 않았다. 외부에서 방문하는 사람은 약속이 되어야 왔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전화라도 하고 왔다. 예전에 불쑥불쑥 찾아왔을 때는 격식 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괜찮았지만 스위트 홈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이웃의 방문이 더욱 형식적인 것이 되면 될 수록 집안은 늘 정돈되어 있어야 했을 뿐 아니라 가족의 화목과 단란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7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의 여유가 생긴 후에 주부들은 집 꾸미기라는 새로운 유행을 쫓기 시작했다. 이제 집은 더 이상 생리적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등 하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주택은 가족의 단란함을 표현하고 주부의 안목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으므로 주부들은 집을 가꾸고 이를 남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개성과 기호를 표현하고 과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잘 가꾸어진 스위트 홈이 빈 둥지와 같이 변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집을 떠난 가정생활 : 90년대 이후 사회가 다변화되고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바쁜 일상으로 변화하면서 주거 내의 비정기적 일상사는 다시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가족 이외에 낯이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은 더욱 복잡해졌으며, 이것은 과거 이웃간, 그리고 친족간에 행해졌던 교류의 일상을 대신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교

2) 일상생활은 진부하고, 피상적이며 사소한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양태를 말하는데, 이것은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사적이고 사소하며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일상생활에서의 경험과 그 의미화는 주관적이면서 선택적인 과정이지만 일상생활이 습관화되면서 성찰의 필요없이 행위가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일상성은 또한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사회관계 속에서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그 의미화라고 볼 수 있다. (Lukeman, 1994; 윤택림, 1996 재인용)

류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기능이 가장 약화된 곳은 산업화시대에 가족의 단란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었던 거실공간이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들은 주거공간 내 각자를 위해 마련된 개인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컴퓨터, 개인전화 등의 등장으로 집밖의 사회적 영역과 직접 소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족구성원들은 집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특히 일상의 여가가 집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빈번해진 이후 집은 거의 잠만 자는 곳으로 변화했다. 또한 생일, 기념일 등의 가족모임 등과 같은 비정기적 비일상의 교류의 기회도 집이 아닌 곳에서 행해지게 되었다. 또한 주거 내 일상사 중 가사 노동과 관련된 부분도 큰 변화를 겪었다. 세탁소나 청소대행업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장보기 등을 하면서 오늘날의 가족생활은 필요한 많은 부분을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외식이 빈번해졌고, 반가공식품을 이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거공간의 기능이 줄어들고 평균 가구원수도 계속 줄어든 상황에서도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거공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특히 2000년의 1인당 주거면적은 1970년과 대비하여 거의 세 배가 늘어났다.³⁾ 기능이 빠져나갔고, 가족들이 머무르는 시간도 별로 없으며, 누구도 별로 찾아오지 않는 넓은 빈 공간이 오늘날의 주거인 것이다.

3. 일상의 변화와 공간의 분화

방 하나에서 모든 것을 : 조선시대 전통 서민주택에서 방은 거의 빈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서민주택에서는 한 공간에서 취침, 식사, 사교, 생리위생 기능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었다. 일반적으로 방에는 가구나 장식품이 놓여져 있지 않았는데(A. H. 세비지 랜도어, 1895), 규모가 작은 집이거나 단칸방일 경우에는 이 좁은 방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방 하나의 쪽 길이는 2.4 - 3미터 정도였으며 높이는 약 2미터 남짓하여 마치 작은 상자와 같이 작았다. 벽 들레에는 천정 가까이 넓은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위에는 잡다한 가정용품, 겨울채소, 막걸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누룩덩어리들 등 잡다한 여러 가지의 물건들을 올려놓았다. 예를 들면 먼지투성이의 고서, 바구니, 그리고 다림질에 사용되는 나무받침대와 방망이, 약병, 밥그릇 한 벌, 성냥곽 등등도 방안에 있다는 기록을 보면 많은 일상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3) 대한주택공사, 주택핸드북, 주택통계편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종합하여 재구성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평균 가구원수	5.24	5.0	4.5	4.1	3.7	3.3	3.3
가구당 주택면적(m ²)	35.9	41.4	45.8	46.4	51.0	58.9	63.1
1인당 주거면적(m ²)	6.8	8.2	10.1	11.3	13.8	17.1	20.2
1방당 거주인	2.4	2.3	2.1	1.8	1.5	1.1	0.9
가구당 사용방수	2.2	2.2	2.2	2.2	2.5	3.1	3.4

있다(L. H. 언더우드, 1880).

양반집의 경우에는 안채와 사랑채에는 침방이 따로 있어 취침의 기능이 분리되기도 했다. 그러나 양반집에서도 배설 및 위생 행위는 방에서 이루어져, 야간에는 물론 때로는 주간에도 안방 옆의 골방이나 사랑채의 침방에 요강을 비치하고 여기에 소변을 보았고, 요강을 비우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세수간이나 목욕간도 따로 짓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에게는 부엌 앞마당이 세수간이 되었고 남자주인은 사랑채 앞 기단에 세숫대야를 놓고 세수를 했다(주남철, 1999). 겨울에는 하인들이 방 안으로 더운 물을 데워서 바치곤 했다. 이렇게 방안에서 세면을 하던 습관은 일제강점기까지도 이어졌는데, 어떤 젊은 부부의 사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엔 일어나 본격이 없는 철없는 모던걸이었던 어떤 젊은 아씨는 안잠자기가 아궁이에 불지피기와 아침 식사준비를 모두 할 때까지도 일어나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남편이 직장에 출근하려고 세수하고 안방으로 건너오면 그때 다시 안잠자기를 시켜 안방으로 양치물을 떠오게 하여 솔로 양치질을 하고 같이 아침식사를 했던 것이다(별건곤, 1931).

주거공간 내의 과도기적 기능 혼재 : 전통 주거공간의 대청에서는 제례 등 비정기적인 일상사가 수행되었다. 대청에서는 여름의 휴식 외에는 그다지 많은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화기 이후에는 그 공간의 효용에 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합리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고 생활의 격식이 많이 타파되었을 때, 대청에 온갖 생활의 잡다한 행위들을 끌어들이게 되었다. 특히 대청은 부엌과 인접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식사준비를 대청에까지 나와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간이 협소할 경우나 형식적인 생활의 규범에 그리 엄매이지 않았던 서민주택에서는 공간 간의 기능적 경계가 부정확하여 각 공간의 기능들은 인접 공간으로까지 침투하고 확산되기도 했다. 과거 대청은 한옥의 공간 중 비교적 단일 기능이 부여되었던 곳인데, 일제강점기에 와서는 오히려 여러 기능들이 혼재한 공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안사랑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곳은 대부분 마루가 되는데, 따라서 손님이 있거나 없으나 어쩔 수 없이 마루에서 쌀을 꺼내다가 물독 혹은 우물 있는 마당에서 씻어서 솔 걸린 부엌에서 끓이면서 또한 마루 끝에서 찬장에 들락날락 해 가며 찬을 갖추어 대접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냄새와 추태를 다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왔다갔다 하는 시간과 수고를 허비할 수 밖에 없어서 그에 대한 비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별건곤, 1928). 어쨌든 이 시기 대청마루는 거의 비워진 공간이 아닌 사용되는 공간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주택 안에서의 손님접대 기능이 안방이나 사랑방으로부터 옮겨짐으로써 방은 복잡한 기능 중 하나를 분리시키게 된 것이다. 대청의 기능이 새로이 형성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의 번잡함을 외부인인 손님에게 보이지 않고 형편이 된다면 소박한 장식도 할 수 있겠다는 의식이 점차 생기기 시작했다. 어수선한 집안사의 치부를 남에게 보이는 대신 이 공간이 손님접대 공간이 된다면 벽에는 좋은 그림을 걸어놓고 조그마한 탁자를

놓고 그 위에 꽃병 하나쯤은 좋아서 집의 운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여(별건곤, 1928) 보여주는 공간으로 대청이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지방의 경우 대청의 모습은 상당히 복잡한 풍경을 연출했다. 서울 여자들은 마루세간 사랑하는 것을 제일로 쳤다는데, 마루에는 될 수 있는 데까지 세간을 많이 진열하여 어지간한 집이라면 의례 찬장, 뒤주 등을 즐비하게 벌려놓았으며, 그 위에는 또 목판, 향아리, 대접, 접시, 유리병과 유리그릇 등을 올려놓아 마치 목물전이나 사기그릇 가게같이 보일 정도였다. 날마다 쓰지도 안는 그릇들 대체 그렇게 벌려놓는 이유는 단지 서울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형식과 체면치레를 좋아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래서 비록 속은 “붕어 사탕모양으로” 텅비고도 있는 척 하느라 그런 세간 나부랑이나마 남이 잘 보는 마루에다 진열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벼런곤, 1932).

기능의 분화 : 전쟁 후 지어진 국민주택은 아주 간단한 공간구성을 보이는데, 핵가족 위주로 각 실의 기능이 완전히 재편성된 것이다. 특히 ‘안방’과 같은 공간의 명칭은 사라지고 모든 공간이 동등하게 ‘침실’이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그 곳에서 수행되어야 할 기능을 명확히 정해주었다. 그러나 국민주택에서 정작 각 공간의 명칭대로 주거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평면의 구성에서 금방 드러난다. 부엌은 거실과 거리상, 동선상 완전히 격리되어 애초부터 부엌살림을 거실로 끌고 들어올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대신 부엌에서의 조리행위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한 찬마루가 대부분 계획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찬마루가 침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찬마루가 방으로 식사를 나르기 위한 동선까지 흡수한 것인데, 이는 침실이란 명칭에 무색하게 일상적인 식사가 방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마루를 보면 음식준비까지 했던 공간인 예전의 대청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전체 공간의 규모에 비해 너무 작게 할당되었으며, 손님접대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부엌으로부터 찻상 하나도 가져오기 어렵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방에서 거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전체 공간규모가 협소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기도 했다. 주택에 대한 수요를 채우기에도 급급했던 50년대까지도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합리적 주생활에 대한 이상은 말 그대로 이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한편 60년대 초 서구의 생활양식을 전제로 한 아파트의 도입은 과거의 생활양식에 변혁을 가져오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주거 내 기능분리는 가속화되었다. 최초의 아파트인 개명아파트로부터 그 후의 마포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에서는 처음부터 “자는 공간”으로서의 방의 기능을 더욱 강조하여 방에 대해 침실이란 명칭을 사용했다. 마포아파트의 경우 거실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할애하고, 부엌도 거실과 직접 연계되도록 계획된 것은 서구식 생활을 지향하도록 한 의도였다. 그러나 아파트가 등장한 초기에 내부공간은 개인생활 공간과 공동생활 공간이 강하게 연계된 구성을 보여 일상사의 가정 내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다. 특히 10평 내외의 소규모 단위주호에서는

거실의 구분조차 없고 침실로만 내부공간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부엌은 재래식 부엌의 개념으로 고립된 공간으로 계획되었고 식사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식침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70년대에 이르면 주거 내부에서 각 공간에서의 기능의 분리, 즉 식침분리가 아파트 평면을 중심으로 뚜렷하게 정착되기 시작했다. 식침분리가 쟁점이 되면서 안방과 거실은 그 기능에 있어서 항상 갈등의 구조에 있어왔는데, 비로소 거실영역이 점차 뚜렷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이다. 각 개인을 위한 침실 등 사적 생활영역, 그리고 가족이 일상 중에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실, 식사실 등 생활영역, 즉 공적 생활영역이 뚜렷이 나뉘어져 각 실은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각 단위주호의 규모가 커져 분화된 기능을 수용하기에 무리가 없게 된 것도 이러한 현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부엌은 다른 공간이 단일 기능을 수행하도록 변화하고 독립적 공간으로 변화한 것과 대조적으로 오히려 다기능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파트 도입 초기의 부엌이 거주공간과 분리되어 배치되었던 것과 달리 80년대 이후에는 점차 가족 공동공간에 인접되어 배치되고, 또한 폐쇄적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거실, 또는 식사공간과 연계되어 구성되었다.

방 하나에 기능 하나 : 기능분리 현상은 90년대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생활이 향상되어 주거 내부 공간의 규모는 커지고 실의 수도 늘어났지만 그곳을 점유하는 사람의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는 실들은 분화되는 또 다른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수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침실 외에도 서재, AV룸, 가사실 등이 생겨난 것이다. 욕실도 한 주거공간 내 여러 개가 생겨 가족구성원들이 분리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욕실에 부속된 파우더룸, 드레싱도 등장했다. 거실공간도 가족공동 생활의 기능과 접대의 기능을 동시에 수용하던 것으로부터 두 기능이 분리되는 것으로 변화하는 사례가 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다. 주거공간 내에서 가장 중심의 위치에 가장 넓게 자리 잡은 거실은 외부에 보여주는 공간으로써 접대와 체면치레의 공간으로 남아있고, 가족이,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들이 공동으로 친밀하게 사용하는 공동생활공간은 좀 더 깊숙한 곳에 위치한 “가족실”이란 개념으로 분화된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4. 사적 욕구의 해결수단으로서의 주거

불분명한 사적 경계 : 개인의 사적 생활을 중요시하는 서구식 생활방식이 본격적으로 조선사회에 전이되기 이전 암묵적으로 설정되었던 사생활의 범주와 그 공간적 경계는 매우 복잡했다. 개항 이후 도시화와 사회계층의 변화가 진행되었지만 주거 공간 내에서 전통적 의미의 사적인 생활과 그 공간의 사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선의 주택이 높은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어서 이웃의 마당을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었던(G. W. 길모

어, 1892) 전통적 구조는 당시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생활의 보호”라는 측면해서 종종 이해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주택은 외부에서 보면 매우 폐쇄적이지만 대문을 열고 나면 모든 공간이 한 눈에 들어오도록 개방적이었다. 그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적 경계는 내부공간을 둘러싼 벽체가 아니라 담장까지 연장되었던 것이다. 또한 외부로 열린 많은 개구부로 인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은 경계가 모호하여 내부공간이 곧 사적공간을 형성하는 이분법적인 규정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생활에 대한 관념은 핵가족단위의 가족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의 개념으로, 남녀 각각 다른 영역에서 영위했던 사생활이었다. 철저한 내외관념 하에 남, 녀의 공간은 분리되었고 종족보존이라는 생리적, 육체적 관계 외에 부부간에 사적으로 일상사를 영위하는 사생활, 그리고 가족이 함께하는 사생활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여성의 공간인 안채는 대문간으로부터 깊숙이 자리잡았고, 특히 안방은 해가 들지 않는 후미진 곳에 위치하여 외부에 노출되기 어려웠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어떤 남자도 안방에는 들어갈 수 없었다. 반면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는 물리적인 공간 경계의 강, 약과는 상관없이 심리적으로는 외부에 전적으로 개방되어 있었다. 이렇게 약하게 사적 개념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 “객(客)”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랑채에는 어떤 남자도 들어올 수 있었으며, 낮선 그들은 그곳에서 즐기며 먹고자기도 했다(L. H. 언더우드, 1880). 조선의 양반들에게 두려운 것은 ‘인심이 사납다.’는 식객들의 험담이었으며, 체면상 그것은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방문한 곳이 설사 가난한 집이었다도 여행객들은 누구냐를 불문하고 최소한 음식과 마실 것은 대접받을 수 있었다(A. H. 세비지 랜도어, 1895). 조선인들은 남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푸는데 그러한 사실은 외국인들에게도 역시 똑같았다.

거리로 확장된 사생활 : 도시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전통적인 공간의 물리적 특성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특히 구한말 이미 상당히 과밀했던 한성의 경우 서민주택은 담장으로 둘러쳐진 넓은 마당을 갖는 것이 불가능했다. 따라서 주택은 담 없이 거리에 바짝 붙어 건물이 담장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경계가 사생활을 한정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내부공간의 연장이었던 울타리 안의 외부공간이 마당이 없으므로 인해서 거리까지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뒤죽박죽으로 왜소하게 만들어진 오두막집들이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얼마나 꼭 붙어있었는지 마치 대문이란 것이 없고 이집 저집이 모두 연결되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환경에서 좁은 집안은 어둡고 무더우며 습해서 대부분의 집안일은 노상에서 하는 형편이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부엌에서 불을 때는 동안 짐통같은 방안에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집 앞 땅바닥에서 시간을 보냈다. 길거리는 취사공간이기도 했으며, 거리로 노출된 평상이나 뒷마루에서 밥을 먹고, 쉬고 담배피우며 담소하는 광경은 흔히 볼 수 있었다. 남정네들은 긴 담뱃대를 입에 물고서 허물어진 흙담벽에 기대서 웅크리고 앉는 채 장기를 두거나 투전놀이를 했다(김영자, 1994). 여자들은 문간 밖에서 뜨거운 국을 끓이거나 빈대떡을 부치고, 남자들은 반죽하고 있는 모습도

당시의 풍경이었다(G. H. 길모어, 1892). 상류주택의 엄격한 공간사용 규범에 비해 서민들에게는 내외법도 없었고, 사적 경계도 없었던 것이다. 거리는 어린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했다. 수많은 아이들이 발가벗은 채 골목에서 뛰어 놀고, 행인이 지나가거나 말거나 급한 용무를 마치는 것은 예사였다. 서구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가족의 사생활이 보장된 단란한 주거의 모습과 당시 조선의 서민주거의 모습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서양에서는 집은 가정이지만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다. 청명한 조선의 날씨에서는 집은 우기나 동절기 동안의 거처 이상이 아니다.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산다. 여름에 그들은 거리에서 요리하고 잠을 잔다. 밤에 골목길을 지나다닐 때에는 땅 위에 간 자리 위에 서로 엮혀 엎드려있는 몸체들을 넘어가야 한다.”(H. B. 드레이크, 1930)

가족만의 울타리 : 일제강점기 신문화와 신문물이 물밀 듯 밀려 올 때 전통적 사회에서 나름대로 형성되어 있었던 일상사의 균형과 질서는 하루아침에 달라지기 시작했다. 모던보이, 모던걸의 활보 속에 남, 녀의 내외법은 사라졌고, 본격적으로 남편, 아내, 자녀가 중심이 되는 가족 단위가 형성되면서 공간의 사용도 재편성되었다. 사생활의 단위는 남, 녀의 분리가 아닌 결합 구도를 중심으로 상, 하 직계로 이루어지는 ‘가족’ 위주로 형성되었고 그 결속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렇게 가족의 사적 생활과 그 장이되는 공간이 뚜렷하게 형성되는 것은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에서 “공적공간”이 형성된 반대급부이기도 했다. 그것은 도시화라는 거대물결 하에 자본주의로 인해 상업공간과 여가공간이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는 과거 주거공간 주변의 생활공간이 근대화된 도시공간으로 전환된 것이었다. 또한 전통사회에서는 공적인 생활과 사적 생활이 주거공간 내에서 혼합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근대적 도시 구조 안에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는 주거라는 울타리를 경계로 명확히 설정되었다.

이 시기 도시의 공공공간 이면에는 사적 공간이 자리잡았지만 그때까지도 울안으로 들어온 사생활은 핵가족만의 것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등장한 신흥 부유계층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행랑식구나 안잠자기, 서생 등 여전히 다른 식구들과 섞여 살았다. 1922년경의 평균 가족 수는 부부와 자녀 합하여 4.5인이어서 잘사는 집에서는 주거공간이 식구에 비해 여유가 있었다(개벽, 1922). 큰 한옥의 행랑에는 주로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올라온 행랑가족이 기거했는데, 부인은 집안일을 해주는 대가로 주인집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남편은 인력거꾼 등으로 하루하루를 벌며 독립적인 가계를 이끌었다. 주인집과 행랑가족 사이에는 서로의 생활을 훤히 들여다보며 살았다. 한편 안잠자기란 안채에서 주인마님, 또는 아이들과 같은 방을 쓰면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의 사소한 가사까지 함께 하는 역할을 하는 젊은 여자였다. 이들에게 주인집 사람들의 사생활은 더욱 가까이 노출되었다.

한편 대가족제도 내에서도 부부중심의 사생활개념은 차츰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주택의 물리적 조건들과 같듯이 되어 나타났다. 당시 문화주택에서 알파카게 형성된 벽체,

그리고 장지문이나 분합문은 공간과 공간을 시각적으로만 차단해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문화주택에서는 대가족제도를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 부모와는 불편해서 못살겠다는 푸념을 하기 일쑤였다(춘추, 1941).

골목길과 열려진 대문 : 전쟁 후 재건의 시대에 건설된 단독주택지에 깔끔하게 지어진 집들은 부모와 자녀가 살기에 꼭 적합한 공간구성을 하고 있었으며, 바야흐로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보금자리처럼 보였다. 단독주택에서 울 안의 공간은 한 단위가족을 위한 것이었지만 대문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항상 열려있었다. 같은 동네에서는 골목을 중심으로 공동체적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일상사를 영위하는 공간이 마을, 골목까지 확장되었다. 아이들은 이집, 저집 다니며 놀았고 낮에는 아낙네들이 골목 앞에 앉아 수다를 떨었다. 60년대 최초로 보급된 TV는 온 동네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수단이었다. 아이들은 저녁나절 집으로 저녁먹으러 오라는 엄마들의 성화가 있을 때 까지 남의 집 마루에 눌러 앉아 TV를 보았다. 뿐만 아니라 저녁을 먹은 후 온 식구가 이웃집으로 '마실'을 가는데, 같이 TV를 보거나 수다를 떨거나. 놀거나 하는 일이 보통이었다. 주거공간은 곧 공개된 사생활의 공간이었다.

60, 70년대 도시 과밀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 이르자 한 가족이 하나의 주택에서 살게 되는 이상적인 주거의 모습은 조금씩 변질되어 갔다. 왜냐하면 주택은 늘 부족하여 셋집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시대 도시근로자들 대부분의 주거가 이러한 셋집의 형태였다. 셋집의 주거수준을 보면 2가구가 사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4가구 이상이 사는 주택도 10%나 되었다. 또한 셋집의 규모는 반수 이상이 5평이하였으며, 1실 임차가 63.3%나 되었으니 말 그대로 단칸셋방이 대부분이었다(임창복, 1984). 셋집에서는 부엌은 개별적으로 사용했지만, 화장실, 수도, 외부 공간 등은 여러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인집과 같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거실을 통해 셋방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한 집 살림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여기저기에서 부부싸움 하는 소리, 아이들 우는 소리로 시끌벅적했고 누구 집이던 서로의 집안사정을 훤히 꿰고 살았다. 75년의 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서는 방 하나에 평균 3명이 살고 있었고, 심한 경우 10명 이상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경향신문, 1975. 7. 12) 80년대는 셋집의 형편도 조금 나아져서 2층 한개 층을 셋집이 온전히 쓰는 경우가 생겼다. 대문과 현관은 초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분리되는 경향을 보여, 사생활을 서로 보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서민아파트에서의 풍경: 사생활이 보장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하고 협소한 주거공간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급속히 보급된 서민아파트에서 더욱 많이 볼 수 있다. 내부 공간은 매우 협소하여 아동들은 형제끼리, 자매끼리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했다. 예를 들어 70년도의 인구주택센서스에 의하면 전체 아파트 중 76.4%가 방 두개 규모였다. 당시에는 전쟁 후 베이비 붐이 일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의 수는 일제강점기 때보다도 많아 주택당 평균거주원 수가 5.24명이었다. 이때 한 방이 부부침실 겸 안방으로 사용되면 나머

지 한 방은 자녀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방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녀가 많으면 나이 어린 자녀가 안방에서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것은 보통이었다. 그렇게 좁아도 젊은 주부들은 온갖 내핍생활을 겪으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파트에 입주해서 주인집 눈치 안보고 내 가족끼기 오붓한 생활을 하는 달콤한 생활을 기대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꿈꾸던 대로만 되지는 않았다. 자식들과 함께 살겠다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부모님이 함께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로 학교를 오게 되거나 직장을 잡게 된 시동생과 시누이는 으레 서울에서 이미 살고 있는 형, 오빠 집에서 얹혀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파트라도 전통적 통념상 형편에 따라서는 대가족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대가족의 문화가 서민아파트라는 좁은 공간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과도기에는 절충의 여지도 없었고, 그 갈등은 거의 극대화되는 상황이었다. 조부모와 아동이 같이 쓰거나 또는 시골에서 공부하러 올라온 친척과 같은 방을 쓰는 것은 다반사였다.

대가족 하에서 남녀가 유별하여 여차피 부부간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전통사회에서 사생활에 대한 욕구는 표출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공간구조에서도 원천적으로 갈등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부부가 한 방을 쓰는 것이 당연시되기 시작하고 부부간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유교적 관념이 타파되기 시작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욕구는 공간적 욕구에 이르게 되었다. 좁은 아파트에서 노인과 함께 사는 경우 노인은 노인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스트레스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핵가족을 전제로 설계된 아파트는 현관문을 닫으면 가족만의 사생활이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지켜지지만 막상 내부공간에서는 형식상 거실 뿐인 작은 공간이 각 방으로 통해 있고 2-3개의 방은 아주 작아, 다른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부적합한 공간이었다(여성동아.I 1987).

사생활 지상주의 : 70, 80년대의 주거는 대부분 핵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왔고 친척, 조부모 등과 함께 생활하는 문화도 사라졌다. 또한 아파트에서의 공유공간은 단지 통과와 성격을 지닌 익명의 공간이므로 거주자들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유공간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가족들만의 공간인 개별주호 내부에 관심을 집중했다. 아파트의 단위세대는 개별화가 진행되어 단위가족을 위한 개인적, 사적 공간을 담보했으며 사생활의 보장은 근대적 주거공간이 수행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 익명의 공적 공간에서 사적인 가족공간으로 전이되는 것은 오로지 현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현관은 잠그기만 하면 외부와의 소통 경로가 철저히 차단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곧 아파트 주거환경에서 “우리”의 범주에 드는 중립적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의 일상사에서 집단지향적 성격(이광규, 1997)이 매우 약화되는 현상이 공간구성으로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적 대가족 하에서 가족 내부에서 남성들간, 여성들간 결합되었던 가족구도는 부부간, 아동들간 결합된 구도로 변화하였다. 아파트의 공간구성은 한국사회의 가족관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가속도를 붙였다. 안방

은 여성의 공간이 아닌 부부의 공간으로 규정되었고, 부부공간이 나타남으로써 아동의 영역도 자연스럽게 분리되었다. 안방 대신 나타난 부부침실은 부부가 공유하고 부부애를 과시하는 영역이 되었으며, 더욱 깊숙이 들어간 사적 공간으로 변화, 정착되었다.

가족의 성역이 된 아파트는 외부로부터의 사생활 침해를 차단하는 공간적 장치들을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주거면적이 늘어나고 실이 증가하는 80년대 이후 중, 대규모 아파트 평면에서는 현관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자리 잡게 됨으로써 주거공간은 외부로부터 차폐되었다. 따라서 외부와의 시각적, 물리적 연계는 더욱 멀어지고 주거 내부공간은 의도하지 않으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렇게 주거공간이 가족만의 사적 영역으로 변화한 가운데, 사적 영역 내에서도 개인공간은 개인만의 사적 영역으로 다시 분화되고 내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80년대 이후 더욱 심화되었다. 즉 개인주의를 그 기본적 관점으로 삼고 있는(권희영, 2001) 근대의 체제 하에 거주원의 일상사는 점점 독립적으로 변하고, 이에 따라 공간도 재편성된 것이다.

개인공간의 확보와 규모증가 : 80년대 이후 주거공간은 지속적으로 면적의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한 부부가 낳는 자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⁴⁾ 이때부터 개별주호 내에서도 내부의 공동생활공간과 개인공간은 상당히 분화가 진행되어 개인화의 특성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과거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한 방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요를 깔고 취침했던 좌식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침실에 침대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확보해야 할 공간의 규모는 늘어났고, 과거와 같이 방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침대사용이 보편화된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아동들간의 공유영역이었던 아동실은 점차 아동 하나가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85년 경에는 2자녀를 둔 핵가족이 한국사회의 보편적 가족구성 형태였으며, 아파트에서 방 세 개 이상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졌다. 즉 안방 겸 부부침실에서는 부모가, 다른 두 방에서는 자녀가 한명씩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⁵⁾ 주거의 질은 계속 높아졌으며, 내부공간 사용의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왔다. 예를 들어 한 방당 거주인은 30년 동안 2.4명에서 0.9명으로 줄었는데, 절대면적이 증가한 상태에서 한 방에 거주하는 인원수가 줄어들었으므로 훨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동안 평균적으로 낳는 자녀수를 일컫는 합계출산력으로 보면 1970년에는 4.5명이었던 것이 1990년에는 1.6명으로 급감하였다.

5) 85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2세대 핵가족의 비율은 70.0%를 차지한다. (대한주택공사, 주택핸드북, 주택통계편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종합하여 재구성)

	평균가구원수 (전체)	방2개이하 아파트 비율(%)	방3개이상 아파트 비율(%)	아파트 방당 거주인 수
1975년	5.0	68.9	31.1	1.94
1980년	4.5	39.9	60.1	1.48
1985년	4.1	26.8	73.2	1.31

개인공간이 안락해지면 안락해질수록 하루 중 특정 시간대를 제외하고 가족공동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개인의 은밀한 생활을 보장해 주었다. 사춘기 아이는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다른 식구들과의 공유시간이 아닌 자기만의 개인시간과 행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공간 내 공동생활공간에서 과거 강제적, 유도적으로 형성되었던 공동의 일상사적(日常事)은 이제 개인의 통제 하에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차폐된 개인공간은 가족 내에서도 익명성과 자유를 보장해주며, 결국 개인의 자기관리와 자기통제가 우선되는 근대사회 내 개인의 속성을 반영한다.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공간의 규모가 확대되고 실의 개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가족 구성원의 고립화와 개인화를 심화시켰다. 더구나 물질적인 풍요는 과거 공동으로 사용했던 공간과 가전제품, 설비 등을 점차 개인이 소유하고 사용하도록 만들었다. 예를 들어 거실뿐만 아니라 침실에도 TV가 하나씩 있고, 전화도 개인이 사용한다. 결과적으로 거실에 모이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었다. 각 실은 개인만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혼자만의 공간으로 변화한 것이다. 한편 90년대 이후에는 주거공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컴퓨터의 발달로 공동 관심사를 위한 대면접촉 등의 행위 없이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이버 공동체가 탄생했고 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한 공간의 공유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가구와 설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각자의 방에서 각종 사이버상의 교류를 즐기면서 거실로 나갈 일도 없어졌다. 이렇다 보니 하루 종일 방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코쿤현상도 나타났다.

5. 나가며

지난 100년간 급변한 한국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전통사회에서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왔다. 이 시기에는 가구구성이 구조적으로 변화했고 가족관계와 가족구성원들간의 서열관계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형성된 시기이다. 이는 새로운 주생활의 유형을 탄생시켰고 주거의 의미와 사용방식, 공간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본고는 일상사의 단편들을 시기적으로 추적하여 공간으로 나타나는 근대적 변화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주거는 그 안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관념적인 것에서부터 실제적인 삶의 모습까지 투영하는 실체이다. 또한 일상생활은 공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체인 개인과 가족이 머무는 공간의 역사는 많은 부분 일상의 역사와 중첩되는 것이다.

전통적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한국 주거를 둘러싼 일상사의 변화는 서구화와 식민화라는 외적 영향과 함께 근대화라는 내적 변화 동력이 함께 작용하며 생성된 산물이었다. 일상사의 변화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이루는 구조적 맥락을 읽을 수 있으며, 이것이 근대화 과정에서는 공간적으로 “분리”, “분화”, “개별화”라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삶의 자유와 기능화, 생활의 질적 향상을 표방하는

근대적 삶으로의 재편과정에서 공간은 점점 규모가 확장되고, 개별적으로 점유하고 지배하는 구조로 변화해 왔다. 지난 100년간 주거공간 안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과거 공동으로 영위했던 일상사가 개인의 주관과 의지에 따라 조절 가능한 일상사로 대체되었고, 공간은 기능에 따라 조가조각 나뉘고 분화된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사회 내 익명성을 담보로 하며, 결국 현대의 소외의 문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많은 과거의 공간들이 사라졌고, 새로운 공간이 나타났으며 공간의 경계는 더욱 두터워 졌는데, 현대 주거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을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한국 주거의 변화과정 속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6. 참고문헌

- 김영자(1994), 『서울, 제2의 고향』, 서울학연구소
- 권희영(2001), 『한국사의 근대성 연구』, 백산서당
- 노형석(2004), 『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 생각의 나무
- 이광규(1997), 『한구가족의 사회인류학』, 집문당
- 주남철(1999), 『한국의 전통민가』, 대우학술총서
- 위르겐 슐름봄 편, 백승종 외 옮김(2002), 『미시사와 거시사』, 궁리
- A. H. 세비지 랜도어, 신복룡, 장우영 역주(1999),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집문당
- H. B. 드레이크, 신복룡, 장우영 역주(2000), 『일제시대의 조선생활상』, 집문당
- G. W. 길모어, 신복룡 역주(1999), 『서울풍물지』, 집문당
- L. H 언더우드, 신복룡, 최수근 역주(1999), 『상투의 나라』, 집문당
- M. 마페졸리, H. 르페브르 외 저, 박재환 외 편(2004), 『일상생활의 사회학』
- Hartmut Häussermann, Walter Siebel (2000), 『Soziologie des Wohnens』, Juventa
- Gerhard Müller(1985), 『Alltag und Identität』, Europäische Hochschulschriften
- 강수택(1998), 「근대적 일상생활의 구조와 변화」, 한국사회학 32집
- 곽차섭(1999), 「미시사-쥘렌즈로 당겨본 역사」, 역사비평 1권 1호
- 임창복(1984), 「다세대 단독주택의 형태적 특성과 거주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권 118호
- 홍형욱(2005), 「근대 이후 한국 주거의 미시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 근대 이후의 삶과 주거변화, 가톨릭대학교 한국근현대연구팀 심포지움 자료집
- 「개벽」, 제24호, 1922년 6월
- _____, 제40호, 1923년 10월
- 「별건곤」, 제16-17호, 1928년 12월

_____, 제25호, 1930년 1월

_____, 제38호, 1931년 3월

「삼천리」, 제12권 10호, 1940년 12월

「신동아」 제5권 8호, 1935년 8월

「신가정」 제37호, 1936년 1월

「여성동아」 87년 8월

「여원」, 1956년 9월

「현대주택」 1986년 11월

‘조선주택 좌담’, in: 「춘추」, 제2-7호, 1941년 8월

대한주택공사, 「주택핸드북」, 「주택통계편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